

조선 덕종이는 천년을, 사람 덕은 만년을 이어가리니

“선생님 책을 읽으니가 법정 스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뒤, 일생동안 어머니를 세 번 뵈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수행에 철저히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까하는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니까, 아들을 세 번 밖에 보지 못한 어머니 심정이 어땠을까? 몽클해서 울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세 번 밖에 뵈지 않으셨을 만큼 자신에게는 무섭고 병약하신 분이 만인에겐 지극히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언행일치言行一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에 해버리셨어요.” 스님을 추억하는 방혜자 화백 그윽한 눈매에 스님이 어 린다.

프랑스 방혜자 선생 집 트락에, 석등이 서있었다. 멀리 꽃과 시가 어우러지는 한국 석화촌에서 숨은 듯 살아가는 은둔 시인인 외사촌오라버니가 보내준 석등이 빼박하니 서있었다. 선생 댁을 처음 방문한 법정 스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장삼을 소매 걷어붙 이고 정학스님과 함께 바로 세워놓았다.

“늘 고향생각을 하니까, 서재와 화실 사이에 완자 문을 달아놓고, 도배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놔뒀어요. 그것도 보시더니 당장 장호지와 붓을 사오라며, 또 걸어붙이시고 두 분이 창문 여닫하고 뒷문을 다 바 르셨어요. 지금도 그때론데... 스님 열반 소식을 들 고 우리 인생이 종이만도 못하구나. 아직도 스님 손 길 ·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스님은 가셨다는 사 실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조선종이는 천년을 간다지만, 사람 덕은 훈훈하 게 만년을 이어가리니.

“시민도임 맑고 향기롭게”가 태어날 때도 곁에서 지켜봤던 선생. “로고를 만들 때도 법정 스님, 정학 스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곤 했어요. 제가 다른데 가 있으면 김상사 김상현에 와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보 각사 평화도 김상현에서 그렸습니 다. 스님께선 맑고 향기롭게 뿐만 아니라 참으로 밝게 사신 어른입니 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맑고 향기롭게’에 ‘밝 음’까지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조선스님 선생 말씀에 미혹한 나그네는 개인 날을 맑았다고 하니까 맑을 속에 밝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하고 현문 (賢問)에 우답(愚答)을 드리고 말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었던 선생은 나자마자 까 무러치고 또 까무러치기를 여러 번. 더구나 동생을 너무 일찍 보는 바람에 젓도 충분히 얻어먹지 못했 다. 그 때 우유를 구하기가 몹시 어려워 아버지가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우유를 구하기도 했고, 밤을 씌어 먹어 키웠다.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가 탁발 온 스 님에게 물었다.

“애도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애야말로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이데도 몸이 약 한 때님을 공기 좋은데 가서 쉬게 하려고 동화사나 수덕사로 휴양을 보냈다. “수덕사 있을 때 노스님하고 친했어. 그 스님께서 날마다 누더기를 기우고 계셨어. 하루는 산에 갔다가 오니까 스님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

인가 했더니 노스님이 열반하셨대요. 아침에 계곡에 내려가서서 목욕재계하고 바위에 앉으신 자세로 열 반에 드셨다고. 연꽃처럼 가부좌를 하신 채 다비를 치렀던 모습을 늘 떠올려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그 뒤로도 법정 스님, 정학 스님과 만남에 이어 기차 안에서 우연히 탄허스 님 제자를 만나 탄허 스님 화엄경 강연을 듣게 되고, 석주스님에게 글씨를 배운 선생은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과 불연(佛緣)을 이어간다.

1990년대 초, 선생화실에서 며칠만 묵게 해 달라고 화실을 찾은 한국비구니스님. 아는 데에서 선생 그림을 보고, 전생애 선생 속을 많이 찍어드려서 도 와드리려는 마음에 불원만리(不遠萬里), 한국에서 예까지 단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 스님은 선생 화실에서 닳새를 머무는 동안 곡기를 끊고, 선생이 당신을 위해 단 1프랑도 쓰지 못하게 했다.

“우주 본체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 하며, 으뜸가는 자비는 자기완성입니다. 선생님은 여덟 생생 동안 화가였습니다. 자잘한 정이나 종교 에 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자기완성을 이 루세요. 못 한 자국 한 자국에 서원(誓願)을 담아, 선

‘맑고 향기롭게’에

‘밝음’까지도 사신 어른

한 몸통이에 붓다와 예수가 동거하는

합장한 두 손이 춤 멈춘 꽃잎처럼

생님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 도록 하십시오. 청정한 마음으로 시장세계 어디를 가나 몸과 마음이 꼭 붙어있는 상태를 관(觀)하세요.”

스님은 선생에게 마음 닦는 법을 비롯해 숙면에서 부터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을 찬찬히 일러주었다. 그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화폭 안팎이 투명하고 밝아졌다는 선생은 그 뒤로 놀이마당에서 한바탕 멋지게 노는 그림쟁이 가 되었다고 돌아본다.

“외국에 있을 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범종소리 가 늘 들렸어요. 범종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 고,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 덕대왕신종에는 범종소리가 부처님 목소리라고 적 바립되어있다. 우리 조상들은 온 정성을 기울여 부 처님 범음을 범종소리로 구현하려고 애썼다. 선생 깃가에 맥놀이 지던 범종소리는 부처님 범음이 아니 었을까.

선생은 영세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제 가 스님과 신부님을 자주 혼동하는데 두 종교 어린 들을 다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가톨릭 신부님 영향으로. 그 신부님



이 여든 둘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늘 아침에 미사 보시고 나서 병자들 집에 가서 간호해 주고,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영세까지 받았어요. 저는 불자니 기독교 신자니 하는 울타리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탄허 스님은 순제 예수님상하고, 부처님상을 함께 놓고 사시잖아요.” 법정 스님도 봉은사 대래원과 불 일암에 사할 때, 서가 한편에 성모상을 모시고 촛불 공양을 올리곤 했다. 법정 스님은 견성을 하면 불자 이길 그친다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미리내 성 지 부근 실버타운 유무사동 마을 성당입구에 서있는 흑인 예수상을 그린 고전화 시 ‘합장’ 을 떠올렸다.

성당입구에 / 미륵반가사유상처럼 / 오른쪽 다리 들어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 두 발과 두 손에 박힌 못 빼어 한쪽 손에 꼭 움켜 쥐고 / 다른 쪽 손으로 턱 괴고 / 가지면류관 험럽하게 쓰고 앉아 / 눈웃음 짓 고 있는 목조예수상이 모셔져 있지요. //.....// 한 몸통이에 환희와 괴로움이 깃들듯 / 한 몸통이에 붓 다와 예수가 동거하는 저 상에서 //.....합장한 두 손이 춤 멈춘 꽃잎처럼 이했어요.

그림에 대해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던 선생을 예술 가는 손으로 그리는 재주보다는 마음으로 볼 줄 알 아야 한다며 그림세계로 이끈 분이 고등학교 때 스승인 김창익 선생이다. “내가 15년이 걸린 것을 년 급방 터득했다”며 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은 대학에 진학 할 때도 서울대 미대 입학원서 를 손수 가져다줄 만큼 선생에 대한 사랑이 깊었다.

마음의 눈으로 그리는 일은 마음 안으로 파고 들 어가 자아 본성을 깨어 가는 길이며, 끝없이 껌질을 벗고 생명 본래 모습으로 귀의하는 수행이라고 믿습 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길은 우리 마음을 비움으로 써 비워둬야 합니다. 비움이 크고 넓을수록 공명 (共振)이 크듯이, 마음을 크고 넓게 비울수록 마음의 눈, 빛의 눈이 우리 안에 빛날 것을 믿습니다. - 선생 책 <마음의 침묵> '마음의 그림' 쪽지에서

박경리 선생은 선생을 이렇게 바라봤다. “화가 방 혜자는 냉정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몸과 마음 을 바쳐 있는 힘껏 행동하는 사람이다. 군사독재시 절 내 딸이 폐렴을 앓은 적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잠 간 귀국해 있던 방혜자는 병자를 위해 죽을 췌어 날 랐다. 검정 뉴튼 통치마에 흰 적삼 같은 것을 입고 부츠를 신은 방혜자 모습은 잊을 수 없다... 방혜자 그림은 우주적이며 유현(幽玄)하다. 조그맣고 가냘 픈 모습을 떠올릴 때 크고 깊은 그의 그림세계가 신 기하기만 했다.”

우주(宇宙), 시원(始原), 생명(生命), 마음, 빛을 화 두 삼아 한평생 그림을 그려온 선생이 생명뿌리 속 으로 깊이깊이 들어간다면, 그 못지않게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우주를 향해 성큼성큼 두 팔 벌리고 다 가가는 사람이 있구나. 선생이 큰 사람이라고 일컫는 따님 사빈이 그 주인공.

“사빈이가 현대 문학을 했어요. 불문학, 빅토르 위 고를 전공을 했는데 아빠가 박사까지 하라고 그랬더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 좋 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 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 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 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 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 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 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 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법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 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 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 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 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 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 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 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 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 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 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

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 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 교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 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 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안전과 사고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 | 험한세상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영험 |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안전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부처님 법구 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 하지 않도록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 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 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 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에 사고나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늘도 안녕을 지

켜주는 호신불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과 친지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평생 공덕을 쌓는 것이다. 호신불 뒷면에는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을 보호 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마친 호신불을 가방 또는 지갑속과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 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45,000원 (사찰스님 20% 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니 자기가 꿈같이 밤새 나는 낯은 책들 속에 코를 박고 일생을 살아야하겠느냐? 자기는 손에 잡히는 실제 삶! 생생한 삶을 살고 싶으면서 졸업장을 놓고 가버렸어요. 딸들이 있는 데로.”

나이 스물 출가(出家).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떠난 진정한 출가다. 그 뒤로 열여덟 해. 날마다 말 열여덟 마리를 거두며 자연을 느끼고 배우러 오는 아이들에게 자연환경과 말, 정감어린 시골을 숨 쉬는 진짜 삶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체험 쌓기를 도우며 살고 있다.

네 살 때 이모가 통닭을 오븐에 넣는 걸 보곤 너무 놀라서 “안돼요! 너무 뜨거워서 안돼요! 닭이 너무 아파요.”하고 외치면서 울었던 아이. “엄마, 이제부터 배추하고 무...그런 것만 사와...불쌍해.” 스스로 선택한 채식주의자 사빈은 학교가 끝나면 동물가게에 가서 날마다 퐁 치워주고, 동물들하고 가계 쇼윈도에 앉아 있곤 했다.

“뚝뚝!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너도 파느냐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개가 영세 받는 날, 저기가면 예쁜 동물들이 많으니까 보러가자면서 대주교님 손을 이끌고 길을 건너고 또 건너서 동물 가게에 가서 개네들을 다 보여드리고... 무슨 이फल이라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말을 좋아해서 조그맣게 때도 커다란 말들을 어른처럼 토닥토닥 두들겨주곤 했던 사빈을 엄마는 일곱 살 때 말 타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애가 하도 당당하니까 말을 잘 타는 줄 알았던 코치. 사빈을 말에

비움이 크고 넓을수록
공명共鳴이 크듯이
말에게 미소를 보내면
말들은 진동으로 느껴

태우고 달리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여러 달 깁스를 하고 지낸 사빈. 여덟 살이 넘어야만 배울 수 있는 말 타기를 기다리는 한 해가 제 삶에서 가장 불행했던 때였다고 돌아봤다. “우리는 애가 이제 말만 보면 겁내고 두려워할 꺼다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따님을 보러 간 선생을 사빈은 다짜고짜 끌어안고 양 볼에 뽀뽀를 해대며 외쳤다.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리둥절해 하는 선생에게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다”면서 자조 지중을 털어냈다. 당나귀가 새끼를 낳던 날, 아기 당나귀가 바람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물웅덩이에 떨어져 크게 다친 데는 없었으나 물 밖으로 겨우 코만 내밀고 숨이 거의 다 넘어갈 즈음에 눈에 띄었다. 달려 내려간 사빈은 당나귀 입에 입을 맞추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다. 겨우 숨을 돌린 당나귀에게 엄마 젖을 물렸지만 기진맥진해 젖을 빨지 못했다. 게다가 엄마 당나귀가 자꾸 새끼를 차내는 바람에 사빈은 젖을 우유병에 넣어 아기 당나귀에게 먹였다. 밥잡

이 유난히도 많았던 사빈,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에도 세 시간마다 꼬박꼬박 우유를 먹였다. 오래도록 그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하는 마음이 일어 고마움을 표시했던 것. 이젠 다 자라 성년이 된 당나귀는 아직도 사빈을 보면 얼굴을 비비대며 반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주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돌이 아니고 하나임을 절감했어요.”

어려서 남달리 환하게 웃던 사빈은 어머니에게 애들한테 가장 먼저 미소를 가르친다고 했다. 사람과 가장 가깝고 잘 통하는 동물이 말이라면 말에게 미소를 보내면 말과 친해질 수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 물었더니 사람은 표정을 봐야 알아차리지만, 말들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느끼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아차려서 금방 친해질 수 있대요.”

아름다운 불꽃을 안고 세상에 온 방혜자 화사(畫師). 불꽃은 돌레를 환하게 밝히며 늘 따뜻하게 해 만물을 활발발(活潑)하게 만든다.

지난 23일 갤러리 현대에서 <빛의 울림> 전시회를 마친 방혜자 화백, 이달 29일부터 2012년 4월 1일까지 제주도 돌문화 공원 오백장군 갤러리에서 초대전 <빛에서 빛으로>를 갖는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상서로운 모습은 보았는가

홀연 철지난 매지름이 북한산을 휘감고 물려들기 시작했다. 아내 거센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가 요란하다. 매실만한 빗줄기가 대지를 할퀴듯 쏟아진다.

한국의 가을의 전령은 설악산에서 기별이 온다. 매일 대하는 북한산의 모습도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저 방대한 산을 온통 분홍색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어느 산모퉁이에는 소복한 여인 마냥 하늘거리는 갈대의 춤사위가 눈길을 끈다. 아마 갈대는 하늘에서 속삭이는 어느 영혼의 속삭임을 저리 소복을 차려 입고 오직 몸짓으로만 이승의 누구에게 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움이나 애절함은 인간의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듯하다. 자연은 그들만이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인간은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쓰러질 듯 일어나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자.

조주 선사는 선종사에서 술한 일화를 남긴 스님이다. 선사는 산동성 조주(曹州)사람이다. 소종(昭宗)의 건녕 4년에 120세로 열반했다고 한다. 그는 14세 때 남전(南泉) 선사를 처음으로 친견하게 된다. 절기는 해동이 되지 않아 으스스 추운 이른 봄이었던 모양이다. 남전 선사는 양지 바른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가 찾아온 사미승 종심(從諡)을 보았다.

남전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종심이 답했다. “네, 서상원(瑞像院)에서 왔습니다.”

남전이 말했다. “그럼, 서상(상서로운 모습)은 벌써 보았겠군”하고 떠 보았다. 그랬더니 종심이 답했다. “아뇨, 서상은 모릅니다만, 와야래(臥如來)를 보았습니다”라고 답했다. 남전은 그 만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 내심 놀라며 일어나 앉아 다시 “네게 스승이 있느냐”고 물었다.

종심은 “아직 추운 겨울인데 스승님께서 건안(健安)하시니 무엇보다도 다행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상대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소통의 문제가 여의치 못하면 일이 어긋나기도 하고 어느 경우 깊은 오해의 늪에 빠지기도 한다.

범어에 ‘Bodha’라는 말은 ‘알’, ‘이해’, ‘인식’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동사 bud에서 나온 말인데 ‘인식하다’, ‘배운다’는 말이다. 우리말로 본다고 하면 눈으로 어떤 대상을 이리 저리 한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아는 정도다. 그렇다면 만약 시각 장애를 일으켰다면 앞에 대상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말이 되고 만다. 범어로 본다고 할 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대상을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진면목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가 아무개를 보았다고 할 때도 그렇다.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국한 시키기 마련이다.

자하(子夏)는 단 하나 뿐인 외동아들을 잃어 마침내 실명(失明)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식 잃은 슬픔을 상명지통(喪明之痛)이라고 한다. 앞을 못 보니까 불편함이란 오죽했으랴 마는 전혀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다. 비록 육안은 잃었으나 그에게는 보석보다 값진 심안(心眼)이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의 스승은 어떠한 분이냐고 물었다. 그래, 우리 스승은 세 가지가 특이하다. 멀리서 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서 대하면 온화하고, 말씀을 들으면 정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있다.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 표명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잠자리에 서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할 것인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아닐까. 말실어거나

소통 여의치 않으면 오해 깊어지기도
상대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
멀리서 보면 위엄, 가까이 들으면 온화
말씀 들으면 정확하다 말할 수 있어야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손해나 불이익이 미칠까봐 주저주저 하는 것이다. 지나친 호사일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먼 훗날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했지’라고 평가 받길 기대해 본다.

완연한 가을 햇살이 포근히 대지를 감싼다. 가을걷이를 서두르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 움직인다. 추수를 마친 들녘에 허수아비가 멋쩍게 서있다. 철 지난 밀짚모자, 등성등성 켤레 낫과 같은 웃도 갈아입지 않고서 겨울을 날 것이다. 아무런 염치나 체면도 없이 재물을 걸탈질 하는 사람들에게 세계 80개국 900여 도시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분노의 함성으로 들쭉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좋다고 허밍(humming)하고 서 있는 허수아비가 유난히 눈에 밝힌다.



세계인류평화기원

용주암 극락전 지장보살님 명부시왕 봉안 1주년 축하공연

영가1년 기도 연등 만등 범회 봉행

스리랑카(정부지원) 국립무용단 초청공연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과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가 초청하는 국립무용단의 대표적인 춤 컨디안 댄스

일시 : 2011년 (양) 11월 5일, (음)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최 : (사) 대한불교 일련종 팔공산 용주암
초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도우
후원 : 스리랑카 주한대사관 스리랑카 문화관광청
장소 : 팔공산 갯바위 앞산 용주암

행사당일 교통안내
 ◎ 동대구역 육교 밑에서 용주암까지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3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이용하시기를 바라오며,
 ◎ 귀가시에는 오후 4시부터 용주암에서 백안삼거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팔공산 갯바위 앞산 용주암
주지 성학 합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현리 산44번지

창사 18주년 기념

VVIP 성지순례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미안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해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안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16일, 1월 27일, 2월 7일
◇ 미안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7일 2,10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저, 만달레이-세도나, 해호-뜨레저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팀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11월 ~ 12월 14일까지 출발상품
 ■ 양곤 | 바간 | 해호 6일 1,74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해호 7일 1,900,000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2,100,000원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팀 포함, 마차투어, 특급식사 등등 추가경비 없음.

인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팀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미산 | 구채구 | 낙산대불 | 황룡사 6
■ 방콕 | 파타야 5일
■ 세계7대불가사의 앙코르왓트 씨엠립 5일
■ 라오스 5일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02)365-7747**